이덕일의 '역사의 창'



농사짓던 사대부들

정상기(鄭尙驥, 1678~1752)라는 인 물이 있었다. 농사꾼이라는 뜻의 농포자 (農圃子)라는 호를 썼다. 그가 이런 호 를 쓴 것은 겉치레가 아니었다.

그는 세조 때 영의정을 지닌 정인지 (鄭麟此)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농사를 지었다. 그는 성호(星湖) 이 익(李瀷:1681~1763)과 친구였는데, 이 익 역시 농군 사대부였다. 양반 사대부들 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는 한이 있어도 호 미를 잡지 않는 시대였으니 특이한 농사 꾼들이었다. 이들은 보통 농사꾼이 아니 었다.

하루는 정상기가 '향거요람' (鄕居要 覽)이란 책을 쓰고는 이익에게 책의 서 문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향거요람은 '향촌에서 사는 방법'이란 뜻이니 곧 농 사짓는 법이다.

이익은 "내가 성호(星湖)의 농장(農 莊)에서 직접 밭을 갈며 살고 있을 적에 정여일(鄭汝逸:정상기)도 적성(積城) 의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 다"라고 말했다. 이익은 지금의 경기도

안산 첨성리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정 상기는 경기도 파주의 산중에서 직접 농 사를 지어 먹고 살았다는 것이다.

이익은 '향거요람 서문' (鄕居要覽序) 을 써 주는데, 춘추(春秋) 시대(서기전 770~서기전 221) 제(齊)나라 관중(管 仲:관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 한다. '관자'에 "농부의 자식은 항상 농 부가 되는데, 빼어난 농민들 가운데 사 (士)가 된 자는 반드시 믿을 만하다"라 는말이다. 이는 '관자'에 나오는 말 그대 로가 아니라 '시경집전' (詩經集傳) '보 전'(甫田)에 수록된 주희(朱熹)의 주석 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원래는 '관자' '광군소광' (匡君小匡) 편에 나오는 말인데 번역하면 이렇게 된 다. "농부의 아들은 항상 농부가 됩니다. 꾸밈이 없고 질박하지만 사특하지 않습 니다. 그중 재주가 뛰어난 자는 사(士) 가 될 수 있는데, 곧 믿을 만합니다. 그래 서 그들은 경작하면 곡식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벼슬에 임명하면 현명한 자가 많이 나와서 성왕(聖王)께서 농민들을 공경

하고 친하게 여긴 것입니다."

농사꾼 중에 선비가 된 인물들을 등용 하면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다. 성호 이익은 집안이 당쟁에 휘말려 벼슬을 포기하고 농사를 지었지만 농업 을 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향거요람 서문'에서 "당대에 뜻을 얻지 못한 자들 은 농사로 돌아가 이를 자산 삼아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을 양육 하니 그 지식이 또한 후생(後生)을 이끌 고 가르치기에 충분한 것이다"라고 말한

그래서 이익은 '밭도랑과 이랑에서 인 재를 발탁하자'는 뜻의 '천발견무'를 썼 다. 이익은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 人)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먹을 것이 없 어서는 안 된다"라는, 극히 평범하지만 영원한 진리로 글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곡식은 소인(小人: 힘없는 백성)이 생 산하니 심고 거두기의 고통은 소인만이 진실로 알 수 있다.

왕공대인(王公大人)은 지식이 넓고 생각이 깊어서 먼 일도 추측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몸이 안일한 데 있어서 보는 것이 없으니 어떻게 백성들의 살을 에고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다 알 수 있 겠는가?"라고 말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넓은 농토를 갖 고 마름에게 소작료를 걷어 오게 하면서 도 자신은 직접 돈을 만지지 않는 것으로 깨끗함을 자부했다. 그래서 이익은 "반 드시 벌열(閥閥)이란 하나의 칼자루를 먼저 깨뜨려 버리고 몸소 농사의 고통을 아는 자 가운데 재능과 덕망 있는 자를 가려 등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두 돈의 노예가 되 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일은 하 지 않고 돈을 버는 방법에만 몰두하고 있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여야를 막론하 고 주요 공직에 발탁되어 청문회가 열리 면 돈에 관련된 온갖 추문이 난무하는 것 이다. 자신의 노동으로 벌지 않은 돈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호 이익의 '몸소 농사의 고통을 아는 자 가운데'에

서 등용해야 한다는 말이 더 와닿는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社 說

전남 동북아 에너지 허브 육성 체계적 전략을

전남은 태양광, 풍력, 조력 등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여 기에 세계 최대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 력이 자리하고 있고 수소 산업 육성 기반 도 튼실하다. 전남이 '동북아 에너지 허 브' 도약을 꿈꾸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 을 통해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최 대 35%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동북 아 슈퍼 그리드(Super Grid, 국가 간 거 대 규모 전력망)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

이번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가 장 주목을 끄는 것은 수소 에너지다. 전 남에는 국내 2위의 부생 수소 생산 능력 (33.8%)이 있는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이 있어 실제 수소 생산의 최적 지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까지 세 곳의 수소 시범 도시를 선정하기로 했고 전남 도는 여수를 1순위로 검토 중이다.

전남은 또한 국내 최대의 태양광과 풍

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21.6%)을 자랑한다. 나아가 한국전력과 에너지 관 련 기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를 중심으 로 둥지를 틀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 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한전공대가 계 획대로 설립돼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 개 발 능력까지 갖추면 전남의 에너지 신산 업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 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입지 여건과 인프라를 고려하면, 전남을 한국·중국·일본 등의 전력 공급 기지로 만드는 '동북아 에너지 허브' 구축이 결코 꿈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육성을 위한 국가 간, 국내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에너지 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 등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 탕으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행해 나가야 할 것

정신 질환 범죄 국가 차원의 대책 필요하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충 격이 채 가시지 않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정신 질환자들의 범죄가 이어져 불안감 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거주지 에 불을 지르거나 이웃을 상습적으로 괴 롭히는가 하면 사회 복지사마저 폭행하 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만 해도 광주시 서구 한 고시텔 에 세 들어 사는 A 씨(60)는 닥치는 대 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해 자신의 방에 보관하는 바람에 이웃과 심한 갈등 을 빚었다. 참다못한 고시텔 관리인 B 씨 (50)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크 고 화재의 위험이 있어 치워 달라고 말했 지만 돌아온 것은 심한 욕설과 '죽여 버 리겠다'는 폭언이었다.

또한 최근 광주시 북구 우산동 임대 아 파트에 사는 D 씨 (52)는 주민 센터 등을 찾아 사회 복지사를 폭행하고 통장에게 칼을 보여 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광주시 서구 한 다.

아파트에서도 이웃 가구의 우유 배달 주 머니에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했 다. 당시 불을 지른 C 씨(여·22)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에 갑자기 천사와 악마가 불을 지르라고 귓가에 속삭였다'며 횡설 수설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문제는 이들의 '묻지 마 범죄'를 막을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와 자치구 는 이들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주 민들의 호소에도 인권 침해를 염려해 소 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 들을 강제로 격리시키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할 권한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호자와 의사에게만 맡겨 놓 는 현재의 관리 시스템으로는 갈수록 늘 어나는 정신 질환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 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정신 질환자의 치 료와 관리 등 예방 시스템 구축을 철저히 하는 한편 관련 예산과 인력을 충원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

의료칼럼

경미한 갑상선 기능 이상 꼭 치료해야 할까



양태영 태영21병원 원장

갑상선은 '아담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목 앞부분의 튀어나온 갑상선 연골 바로 밑에 위치하며, 나비 모양의 호르몬을 분 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보통 목안에 있는 편도선이나 임파선 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상선은 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목의 밖, 앞부분에 있다.

갑상선은 뇌하수체의 명령을 받아서 신체 발육 및 에너지 대사 조절을 한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지면 대사 속도가 빨라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 는데, 이 때는 땀 분비가 많아지고 잘 먹 는데도 살이 빠지며, 심장이 빨리 뛰고 위장 운동도 빨라져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한다. 손 떨림도 흔한 증상이다.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 면 대사 속도가 느려져 추위를 못 견디 고, 식사를 많이 하지 않는데도 얼굴과 손발이 붓고 체중이 증가한다. 위장 운동 이 느려져 변비가 발생하고 기억력도 감

이렇게 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며 갑 상선 클리닉을 찾아오기도 하지만 증상 이 애매하여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즉 목이 부어서 주위 사람들의 지 적을 받거나 혹은 이비인후과를 갔다가 갑상선 클리닉으로 가보라고 권유 받고 온 경우가 상당수다. 또한 건강 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한 경우, 눈이 튀어 나왔거나 눈 언저 리가 부어서 안과를 먼저 다녀 온 경우, 심지어 신경과민으로 정신 건강 의학과 를 갔다가 갑상선 질환이 의심된다고 전 원 되어 온 경우, 몸이 가려워서 피부과 를 갔다가 온 경우 등이 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증상이 심 하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건강 검 진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돼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온 경우가 80% 정도 된

그렇다면 건강 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 된 경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임신전 검사 때 발견된 기능 이상을 모두 치료해 야 할까? 우선 이 기능 이상이 그 당시 몸 컨디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 은 원래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나 그레이 브스병에 의한 초기 변화인지를 구분해

이는 혈액 검사를 통한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자가 항체 측정, 그리고 갑상선 초음파 또는 갑상선 스캔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만약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경우에 는 갑상선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는 바늘로 세포를 흡인해 현미경으로 확인 하는 세침 흡인 검사를 시행한다. 그래서 경미한 갑상선 기능 이상이 갑상선 염증 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라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주기적으로 관찰 만 하면 된다.

한편 임신 전후로 갑상선 기능의 이상 이 있다면 태아 발육과 IQ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산모에게 갑상 선 기능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임신 초기 갑상선 자극 호르몬 치를 2.5 uIU/mL 이하로 유지하도록 진료가 진

행된다. 그러나 최근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몇 몇 연구에서 경미한 갑상선 기 능 이상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 때문에 지난 2017 년에 미국갑상선학회에서는 임신 초기 갑상선 질환이 없는 산모에서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치를 4.0 uIU/mL 이하로 유지해도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다. 다만 여전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 는 산모에서는 기존대로 갑상선 자극 호 르몬치를 2.5 uIU/mL 이하로 유지하라 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한다.

갑상선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 게 볼 수 있는 질환이다. 다행스럽게 갑 상선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 큼 고통스러운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경미한 갑상선 기능 이상에 예민할 필요 는 없다. 다만 방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조금만 신경 쓰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치료를 소홀 히 해 여러 증상을 안고 지내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기적인 관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의병 기념관 건립, '의향 광주'가 보인다



기 고

이현선 광산문화원장

광주 어등산에 광주시가 '의병 기념 관'을 건립한다는 소식(광주일보 4월 18일 자 5면)이 반갑기만 하다. 늦었지 만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드 디어 '우리나라 의로움의 뿌리'를 찾게 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등산은 우리나라 '의향(義鄕)의 1 번지' 즉 '의병의 발원지'이다. 어등산은 대단히 의로운 곳이었다. 한말 호남 의병 의 본거지이자 최후 최대 격전지가 된 곳 도 다 이곳 어등산이다.

한말 호남 8대 의병장 중 김태원, 김 율, 조경환, 김원범, 오상열 의병장 등 5 명과 100여 명의 의병이 어등산 전투에 서 순국한다. 한말 의병은 독립군으로 이

어지고 독립군은 광복군을 낳고 광복군

은 우리나라 국군으로 그 맥이 이어졌 다.

임진왜란 때도 호남 의병의 첫 창의는 이곳 어등산에서 시작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년 영웅인 제봉 고경명, 창의사 김천일, 일휴당 최경회, 삼도도순변사 (三道都巡邊使) 신립, 충민공 양산숙, 죽천 박광전, 동애 안중묵, 녹도만호 정 운, 호우의곡장(湖右義穀將) 김덕우, 삼 천 최경운, 죽계 최경장, 고죽 최경창, 김 광운, 청계 김두남, 김지남, 습정 임환, 준봉 고종후, 학봉 고인후, 죽촌 고성후, 유온, 해광 송제민, 현감 임권, 유경지 등 이 모두 어등산과 관계 맺은 인물들이

이들은 어등산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 (義)를 키웠고 실제 임진왜란을 맞아 죽 음을 걸고 한양 수복 길에, 영남 진주성 전투에 나선다.

어등산이 또 대단한 것은 이런 대단한 의로움이 임진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 다는 것이다. 정유재란 때 양응정 가 (家) 아홉 분이 순절한 의로움의 고장이

되었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의병으 로 이어진다. 임진년, 그리고 거슬러 올 라가면 1555년 을묘왜변에 이르기까지 어등산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의병정신 은 3·1 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3·15 의 거,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 월 민주항쟁,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이어진 다.

요즘 이 어등산이 '의병 기념관' 건립 소식과 함께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난 3 ·1 운동 100주년 기념 일환으로 제작된 KBS2 TV '영상앨범 산'이라는 프로그 램에 의병 산인 어등산과 무등산이 전국 에 방영되기도했다. 또 4월 12일에는 전 남도립국악단이 죽봉 김태원 의병장 등 어등산 의병 활동 이야기를 엮어 만든 판 소리 창극 '개벽'이 공연됐다. 이를 보면 서 '드디어 의로운 어등산의 의미가 알려 지기 시작했구나'하는 생각에 울컥, 가 슴이 벅차 올랐다.

나는 그동안 이용섭 시장이 찾겠다고 한 의향의 광주는 어등산에 세워질 '의병 기념관'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굳건 히 믿어 왔다. 의로움의 장소에 독립 의 병 기념 테마 파크가 조성 된다면 '의향 광주'를 한눈에 보여 주는 관광지로, 또 시민의 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어등산 '의병 기념관' 건립은 광주 의 로움 찾기이자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의로움을 찾는 출발이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가장 돋보이는 대한민국의 의 로운 정신의 근거지로 삼아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문화 역사 관광 지'로 발돋움해야 한다.

광산구청은 매년 10월 25일을 '어등산 의병의 날'로 정해 광복회 광주·전남지 부와 함께 추모제와 기념식을 거행해 왔 다. 또 이번 5월 25일에 광산구 박호동 박산마을에서 '조선 의병 축제'가 열리 고, 오는 6월 14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의병의 선각자 양응정 선생 탄생 500주 년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나는 이런 행사를 더 키워 광주 의로움 을, 대한민국 의로움으로 확장시켜야 한 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의향, 예향, 미 향 광주를 한눈에 보여줄' 실천이기 때문

無等鼓 🥠

'빛'을 보다

포브스가 발표한 '2019 억만장자 리스 트' 중 최고 부자는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다. 재산이 약 1310억 달러(약 148조6000억 원)나 된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히는 말리 제국 의 왕 만사무사(1280~1337)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다.

말리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는 거대한 영토 내 황금이나 소금 등 풍부한 자원을 소유했다. 무슬림이었던 만사무 사가 메카 성지 순례에 나섰을 때는 그 일행이 무려 6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의 모습은 흡사 이동하는 도시처럼 보였다. 지나

편집국안내

부 220-0649

부 220-0632

집

치

경 제

사 회

가는 곳마다 쏟아지는 황금에 경유지 주 민은 비명을 질렀다. 이집트 카이로는 금 가격이 10년간 폭락하면서 도시 경제가 마비될 정도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중세 시대 소수 특권층인 귀족·승려·기사 등의 성지 순례 가 관광의 시초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 다. 산업 혁명에 의한 자본주의 발달, 자 동차·비행기 등 이동에 필요한 기계의 개 발 및 발전, 노동 시간의 감축과 서비스 산업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근대적인 의 미의 관광은 산업으로 성장했다. '관광

이란 단어의 어원은 '관국지광 이용빈우 왕'(觀國之光 利用賓于王)이라는 '주 역'의 한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 나라의 '빛' 즉 훌륭한 문물을 관찰하거 나 동시에 보여 준다는 의미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멀고 기반 시설이 빈약하지만, 전남의 진정한 가치 가 이제서야 주목받고 있다. 서해안고속 도로와 호남고속철도 등 기반 시설이 갖 취질 때마다 대폭 증가했던 관광객이 지 난 4월 10일 천사대교 개통으로 다시 관

련 수치들을 갱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루 10명에 불과했던 신안 암태도 에로스 서각 박

물관의 관람객이 5000명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찾은 관광객들이 전남 의 섬 풍경과 자원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 전남에 왜 도로·철도·항만 등의 기 반 시설을 서둘러 더 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돈(금덩이)을 물 쓰듯 했던 만사무사 같은 이를 기대할 순 없겠지만, 전남의 '빛'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전남에서 즐겁게 쓰고 먹고 놀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FA X 222-0195)

무 국 220-0551

光则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과 리 국 227-9600 업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 남 본 부 220-0642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 화 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52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